

자료제공: 2023. 5. 17.(수)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	조혜정	2133-5260
	미주구주팀장	전영우	2133-5284
	사진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진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쪽수 : 8쪽	담당자	이시욱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 서울시장 면담...전후 도시재건 복구 협력 강화

- 17일(수) 오세훈 시장,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 면담...상호협력 강화 논의
- ▲인도적 지원 ▲문화교류 ▲사회·경제·문화 인프라복구 등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협력 강화
- 오 시장,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 위한 일관된 지지...지속적 관심, 지원할 것
- 서울시 문화본부-우크라이나 대사관 MOU...문화재 보존·복원, 문화시설 운영 등 문화협력

-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수) 서울시청에서 우크라이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올레나 젤렌스카(Olena Zelenska) 대통령 영부인을 접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및 전후 복구 지원, 문화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올레나 젤렌스카 영부인은 2023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 100인’, 2022년 영국 BBC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되는 등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여성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
 - 특히, 지난해 9월 올레나 젤렌스카 재단을 설립해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의료, 교육 분야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인도적 지원금을 전달하고, 남산 타워·세빛섬·서울특별시청사 등에 우크라이나 국기 색상의 조명을 표출하는 ‘평화의 빛’ 캠페인을 진행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 서울시는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인도적 지원으로 현금 20만 달러를 전달했다.
 - 서울시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시와 교통, 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향후 문화재 복구 지원 등으로 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서울시 문화본부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문화재 보존·복원 ▲문화시설 운영 ▲세종문화회관 지하 역사전시실 내 우크라이나어 통·번역 가이드 제공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의 문화 교류 및 접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님께 경의를 표한다”며, “서울시 역시,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한 지지와 함께,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의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해 전쟁으로 파괴된 사회, 경제, 문화, 인프라 복구를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 이어, 오 시장은 우크라이나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과 의료 분야 대한 지원에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히며, “오늘 체결하는 문화예술 분야 업무협약이 향후 서울시와 우크라이나 간의 교류를 확대해나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올레나 젤렌스카 영부인은 “우크라이나는 인도적인 외교의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문화와 언어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며, “오늘 세종문화회관 내 우크라이나 오디오 가이드를 도입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 붙임 1. 면담 사진
- 2. 영부인 인적 사항
 - 3. 우크라이나 개황
 - 4. 양해각서(안)



- 사진설명: (좌) 올레나 젤렌스카(Olena Zelenska) 영부인, (우) 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설명: 서울시-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문화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식

□ **성명** : **올레나 젤렌스카**
(Olena Zelenska)

□ **출생** : 1978년 2월 6일
(우크라이나 키리비리흐)



□ **학력/경력**

○ 키리비리흐 공과대학 졸업(2000)

○ 올레나 젤란스카 재단 설립(2022.9)

※ 2023년 美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지도자 부문 선정 (30위)

□ **주요활동**

○ 전 세계 박물관 우크라이나어 가이드 보급 프로젝트 추진

※ 세계 30여개 나라 문화기관 우크라이나어 오디오가이드 설치(2020년부터)

○ 전쟁기간 질환 보유 유아 해외 대피 및 신생아 인큐베이터 지급

○ 가정·젠더 폭력에 대한 예방, 장애인 및 노인 등 배리어프리 환경제공 조성 등

□ 일반현황

- 국 명 : 우크라이나 (Ukraine)
- 수 도 : 키이우 (297만 명)
- 언 어 :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
- 인 구 : 약 4,319만 명 (2021)
- 면 적 : 603,500km² (남한의 약 6배)
- 종 교 : 우크라이나정교, 가톨릭, 개신교
- 민 족 : 우크라이나계(78%), 러시아계(17%) 등
- 기 후 : 흑해 연안 인접한 남부 온화, 북쪽으로 갈수록 추워짐

**□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의원집정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 결합)
 - 대 통 령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 19.5.20~)
- 의 회 : 단원제 (총 450명, 임기 4년) ※ '19.7.21. 조기(특별)총선 실시
- 지방정부 : 24개 주(Oblast) 및 크림자치공화국
 - ※ 수도인 키이우시 및 크림자치공화국 수도 세바스토폴시는 특별지위

□ 경제현황 (2020, IMF)

- GDP : 1,422억불 / 1인당 명목GDP : 3,424불
- 교 역 : 970.6억불 (수출 451.4억불, 수입 519.2억불)
- 주요자원 : 철광석, 망간, 우라늄, 가스, 석탄

□ 우리나라와의 관계 (2021, KITA) ※ 재외국민 813명 (2020)

- 수교일 : 1992.2.10.
- 교 역 : 약 7.51억불
 - 對우 수출 : 5.23억불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고무제품, 화장품 등)
 - 對우 수입 : 2.28억불 (곡물, 광물, 철광, 목재류 등)

**서울특별시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간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서울특별시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협력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호혜주의의 원칙에 따라 양 기관은 문화기반 조성,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보존·복원, 문화시설 운영 등의 분야에서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한다.

- 세종문화회관 우크라이나어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상호 간 협의된 협력사업 추진사업을 할 수 있다.

제 3 조

양 기관은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상기 언급된 문화예술 분야 교류·협력사업 및 활동을 지원한다.

제 4 조

본 협약서는 협약과 연관된 타 기관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 기관에게 특수한 법적 우위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본 협약서는 한국어, 영어로 작성된 언어별 2부의 정본으로 이루어지고 각각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본 협약서는 2023년 5월 17일 서울시에서 서명되고 서명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휘된다.

2023. 5. 17.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Embassy of Ukraine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Embassy of Ukraine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hereby enter into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promote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s and collaborations.

Article 1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maintain a relationship of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s and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Article 2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reciprocity, the Parties will enhance cooperation and exchanges in the fields of cultur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motion of cultural arts,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operation of cultural facilities, for the mutual prosperity and development.

- The parties shall Implement mutually agreed-upon projects, including the provision of Ukrainian language audioguides at Sejong Center.

Article 3

The Parties shall maintain regular communication and support activities and projects related to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s as mentioned above.

Article 4

This memorandum does not affect the relationship with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associated with this agreement and does not grant any special legal superiority or authority to either Party. This memorandum shall be written in English and Korean, with two original copies in each language, all of which shall have equal effect. This memorandum shall be signed in Seoul on May 17, 2023, and shall come into effect from the date of signing.

2023. 5. 17.

Mr. Choi Kyeong-Ju
Deputy Mayor for Cultural Affairs

H.E. Dmytro Ponomarenko
Ambassador of Ukraine
